



# 진정한 만족은 그대 자신에게서 온다

이상각/시인

한 초등학교의 과학시간이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중력의 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둥근 지구 위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란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물었다.

“선생님 그럼 그 중력의 법칙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구에 매달려 있었나요?”

**그**대는 사회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성경이나 코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은 어떤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법칙은 이미 있었고, 삶은 그 법칙을 따른다. 그대의 삶이 서럽고 고달픈 것은 그 법칙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한 법칙이란 곧 자연이며 만물의 본성이다. 그것을 그대는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면서도 원망을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자신이다. 흐르는 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연어의 본성이다. 하지만 인간은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설치한 방향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리하여 자꾸만 좁아져 마침내 뒤돌아 설 수 없는 위치에까지 이른다. 그곳이 곧 그대의 무덤이다.

어린이의 웃을 입어라. 어린이의 삶으로 돌아가라. 모든 아이들은 아름답다. 그들은 의식하지 않는다. 물처럼 자유롭게 표현하고 미소짓는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곧 아름다움이다. 그들은 살아있고 행동적이다. 뛰어다니고 춤을 춘다.

왜 이런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추한 어른이 되고 마는가. 그것은 훈련 때문이다. 아이는 대소변 가리는 법을 배우고 밤에 일찍 자는 규칙에 따라야 한

다. 배가 고프지 않는 데도 시간이 되면 먹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비극이며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그대의 현실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일을 하고 한달치의 봉급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루피 짜리 지폐가 한 장 더 들어있었다. 아마 회계원이 계산을 잘못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달 봉급에는 10루피가 부족했다. 그는 즉각 회계원에게 달려가 항의했다. 그러자 회계원이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지난 달에 10루피가 더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지금 10루피가 덜 갔다고 따지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러자 물라 나스루딘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것 보시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해요. 그런데 당신은 벌써 두번째나 실수를 했소. 나는 그 점이 불만이란 말이오.”

세상은 늘 이런 식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점차 위선에 익숙해져 간다. 부자연스러운 온갖 규칙 속에 거울은 더럽혀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그런 규칙을 강요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달픈 여정이 되고 만다.

이런 삶의 방식을 그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대의 살아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법칙을 버리는 것이다. 어린이의 순수한 가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부유는 사회가 아니라 본성에서부터 온다.

그대가 인식하지 않는 그 길이 그대 안에 있다는 말이다. 세상의 기준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라.

-「인연을 비껴가지 마라」(지혜의 나무)에서 발췌-